

제 1 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 토론회도 가져

해마다 국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열렸던 건축작품전이 올부터 “대한민국건축대전”으로 모습을 바꿔 그 첫번째의 잔치가 건축인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달 열렸다.

지난 10월15일부터 12일간 문예진흥원 전시실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번 건축대전은 신·기성인을 막론하고 건축인이라면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무게있는 작품전이었고, 특히 이번부터 정부가 주관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건축인들의 손에 의해 열린 것이라는 점에서 더 뜻깊은 행사였다.

한국 건축가 협회(회장 李丞雨)가 주최하고 문예진흥원·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 이번 건축대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작품작과 높은 수준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게 관계인사들의 말이다.

과거 국전의 경우 건축부문의 평균 작품수는 20여점을 밀돌았으나 이번의 경우는 무려 2배가 넘는 45점이 작품에 양적으로 풍작을 보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놀랄만큼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건축대전의 입선작도

많아 모두 26작품—, 이중 대상 1점, 우수상 3점, 나머지 22점이 뽑힌 작품들이다.

대체적인 심사평은 앞서와 같이 질·양면에서 예년의 경우를 앞섰으나 전체적인 출품경향은 과거 국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또 작품내용에 비해 과잉·과다표기 제작하는 경향과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작가능력과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와 균형이 맞는 진지한 자세가 바람직하고 제시되기도 했다.

따라서 과거 국전입상작의 표기 수법을 모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각자 주장에 알맞게 표기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대전에서도 이번 대상의 수법을 모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좋은 점은 시사성 일변도에 치우치지 않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와 주거·기념관·스포츠레저시설 등 광범위하고 고르게 관심의 폭이 넓어진 점을 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대작가작품과 일반 공모작품 등 약 1백여 작품이 일반에 공개 전시되었다. 심사결과 대상

을 받은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박물관(museum)”

□ 심사평 / 다른 작품과 돋보이게 다 른 점은 대부분의 경우 조형구상을 평범하고 피상적인 동기에서 조형언어를 인용구사 하는 경향에 비해 이 작품은 자연환경과 조형물이 서로 만나고 구성지어지는 요소마다 공간의 생명력을 음미하면서 작품내용 구석마다 심취하며 펼친 흔적이 우수했다.

계획발전단계과정과 창의적인 새로운 기법에 찬사를 느끼는 한편 post modern의 흐름에 안이한 편승으로 오해되는 비판도 함께 엿갈렸다.

유토피아적 상상의 세계가 소극적이긴 하나 정적이고 자연과 순화하면서 조형공간의 음울과 진폭도 강하고 높게 구성되었다. 공간을 심도높은 차원까지 파헤친 밀도높은 작품이다.

한편 주최측인 한국건축가협회는 전시 기간 중인 지난 10월23일 82년도 건축토론회를 열고 도시계획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번 전시회 입선작가에 대한 시상식과 리셉션을 가졌다.

☒ 건축대전 입상자

□ 대상 / 양남철·최윤경·이현수 <작품: 박물관>

□ 우수상 / 김문덕·김성기·김성택 <작품: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 우수상 / 노광현·최성태 <작품: 고전과 현대의 만남>

□ 우수상 / 홍사엽·김주연·공순구 <작품: 맑은물·푸른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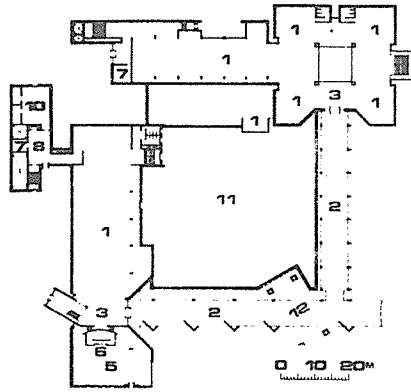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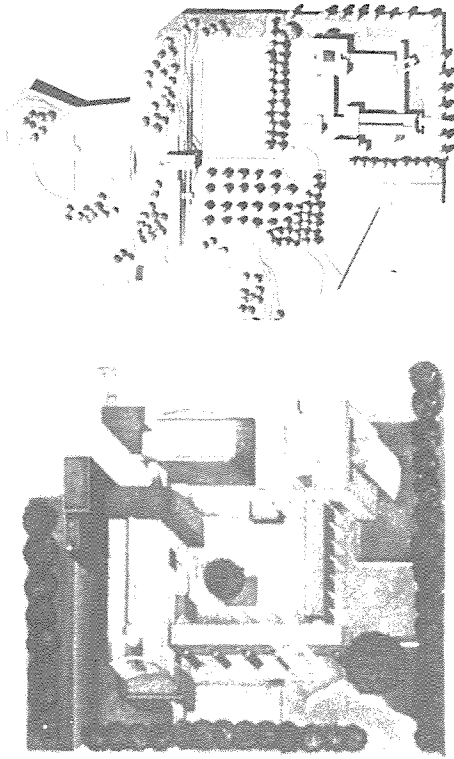


■ 건축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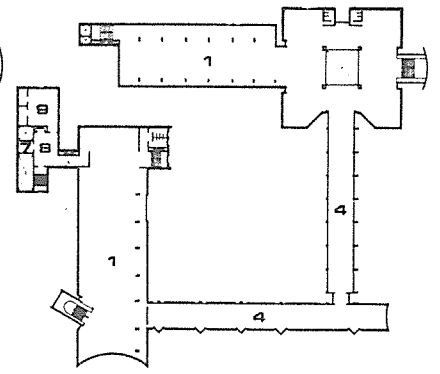


■ 건축대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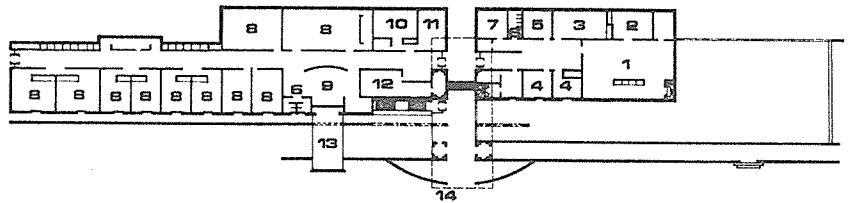
■ 대상 / 박물관



전시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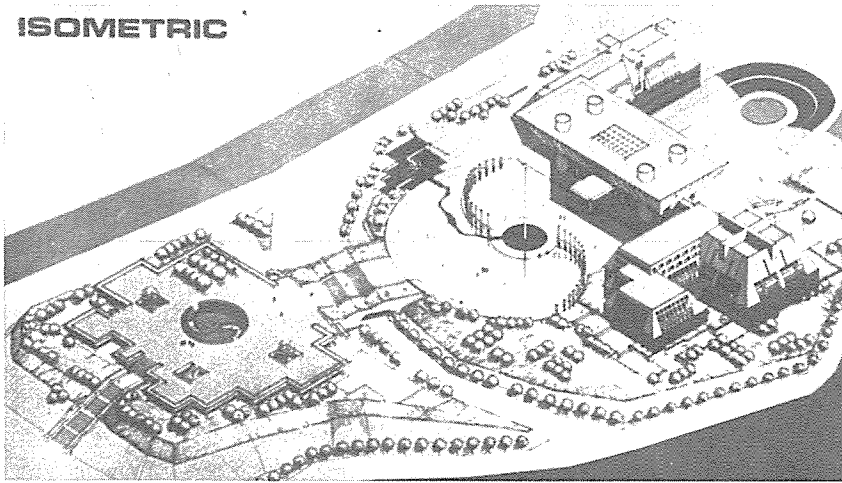
전시동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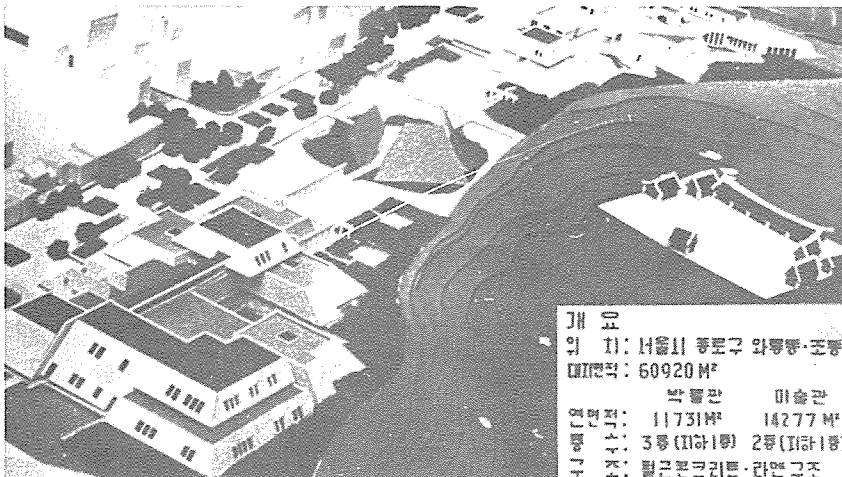
연구·교육동 1층평면도

■ 우수상 /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ISOMETRIC



■ 우수상 / 고전과 현대의 만남



개요
 의뢰: 서울시 종로구 외동동·종로
 대지면적: 60920㎡
 연면적: 11731㎡ 박물관 미술관
 층수: 3층(지하1층) 2층(지하1층)
 계획: 김근복·김리현·라연규·조

■ 우수상 / 맑은물·푸른서울

